공공도서관 개관장서 구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Founding Collection in Public Libraries

장 덕 현(D. H. Chang)**

〈목 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Ⅲ. 조사결과
 1. 장서개발정책 수립 여부
 2. 장서구성 기본계획 수립 여부
 3. 개관장서 규모
 4. 향토자료 구축
Ⅳ. 공공도서관 개관장서 구축 방안
 1.장서개발정책 수립
 2.장서 구성 기본계획 수립
 3.개관장서 규모 산출
 4.향토자료 구축
Ⅴ.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개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구축되는 개관장서 구성의 방법론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최근 지역자치단체 등이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반면,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장서구성에 대한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선에서는 혼선의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개관한 10개 공공도서관의 개관장서 구축 사례를 검토하여 장서개발정책 수립, 장서구성기본계획 수립, 개관장서 규모 도출, 그리고 향토자료 구축 방안 등의 측면에서 표준적인 공공도서관 개관장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 개관장서

ABSTRACT

This study illustrates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founding collection in public libraries. Specifically, this study surveys such cases of ten public libraries recently opened. It also analyzes current laws and standards about library collection and compares the criteria with the ones in various manuals and reports. For the study, supplementary data were also collected through qualitative interviews and brain-storming discussions with public librarians and other 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in charge of the library construction project. For the sugges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such founding collection, the researcher put the emphasis on the construction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the library, on the official collection plan, on the adequate volume of founding collection, and on the strategies for collection programs about regional studies.

Keywords: Publ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Founding collection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논문접수: 2017년 11월 17일 •최초심사: 2017년 11월 30일 •게재확정: 2017년 12월 16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303-320,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12.303]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개관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모두 1,060여 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 인구 약 5천160만 명으로 환산하면 공공도서관 1개관은 인구 약 5만 명을 봉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5년 전인 1992년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281개관으로 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인구가 인구 15만6천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매일경제신문, 1993. 1. 19) 공공도서관의 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입증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된 세계 주요국가의 공공도서관 수 및 1관 당 봉사대상인구와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그 주요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주요국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 및 1인당 장서수

국가	도서관 수	1관당 인구수	인구 1인당 장서수	기준연도 및 출처
한국	1,010	51,184	1.9	2016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미국	9,133	30,814	2.7	2015 / 미국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협회(IML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
영국	4,614	12,741	2.0	2014 / 영국 도서관 통계기구(LISU, Library & Information Statistics Unit).
독일	7,623	10,595	2.4	2015 / 독일 도서관 통계(DBS, German Library Statistics).
일본	3,280	39,093	3.4	2016 / 일본도서관협회(http://www.jla.or.jp).
호주	1,631	16,186	1.6	2014 / 호주 국립 및 주립도서관 (http://www.nsla.org.au/)
네덜란드	770	22,050	2.5	2015 / 네덜란드 도서관 포럼(http://www.fobid.nl).
핀란드	881	6,195	6.5	2015 / 핀란드 도서관 서비스 (http://www.libraries.fi/)
덴마크	533	10,707	5.0	2015 / 덴마크 통계청(http://www.dst.dk/).

새로운 공공도서관을 건립·개관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의 서가를 차지하고 있는 장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장서는 도서관 서비스의 시작점이며 가장 중요한 서비스 도구이기도 하다. 특히 새로운 도서관이 개관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에게 공개되는 개관장서는 개관 초기 도서관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며 향후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와 이용자들의 충성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 글에서는 도서관 개관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요소들 중 특별히 장서에 주목하였다. 매년 50 여개의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건립되는 상황에서 많은 도서관들이 초

기장서 또는 개관장서 구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신규 개관한 10개의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근거로 공공도서관이 개관장서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최근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설립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간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18년까지 1,100개관(인구 4만5천명당 공공도서관 1개 수준)의 공공도서관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6년도 실행계획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50개의 공공도서관이 신규 건립될 예정이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58개의 공공도서관 신규건립이 추진 중이며, 이를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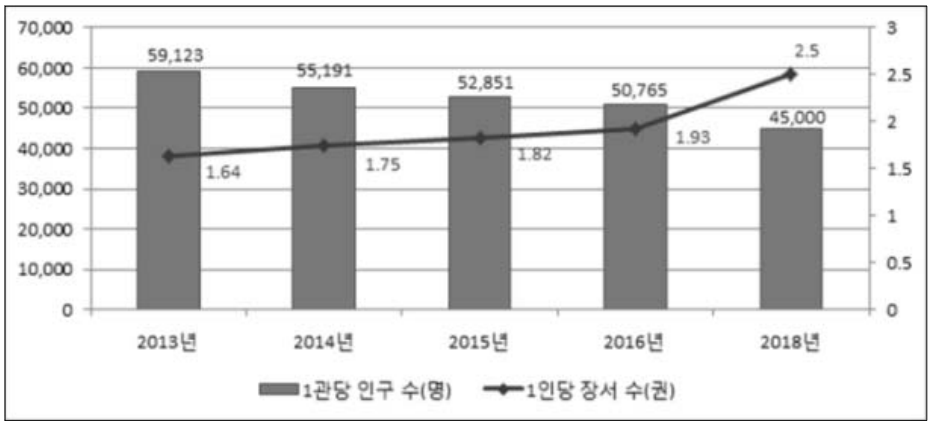
〈표 2〉 2016년 전국공공도서관 건립 현황

(단위: 백만 원)

시/도	사 업 명	국 비	지방비	비 고
서울	6개관	4,758	11,945	
부산	4개관	11,274	8,271	
대구	1개관	800	1,200	
대전	1개관	200	0	
경기	23개관	14,319	38,765	
강원	5개관	60	6,330	
충북	3개관	1,600	2,450	
충남	3개관	0	11,550	
전북	1개관	320	480	
전남	3개관	0	6,465	
경북	6개관	3,920	7,654	
경남	2개관	1,552	2,313	
계	58개관	38,749	97,423	

새롭게 건립되는 공공도서관들은 물론 지역특성과 주민의 일상적 요구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시

작점이 장서이며, 도서관은 결국 소장된 장서로 말한다는 사실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25년 전인 1992년을 돌아보면, 당시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평균 장서규모는 약 2만7천권으로 인구 1인당 0.18권에 불과하였다(매일경제, 1993). 그러던 것이 현재는 인구 1인당 약 1.75권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장서는 2018년까지 인구 1인당 약 2.5권으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근거로 최근 5년의 공공도서관 장서의 변화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공공도서관 1개관당 봉사대상 인구 수 및 1인당 장서 수 추이(예측)

이렇듯, 공공도서관 장서의 양적 확충을 위하여 정부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년 50여 개의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개관하는 상황에서 개관장서 구축에 대한 표준적인 방법이나 절차보다는 해당 지역자치단체나 공공도서관의 단기적인 필요와 여건, 재정적 상황 등 에 따라 장서를 구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초기 이용자들을 위하여 양과 질의 측면에서 우수한 장서를 구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착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최근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개관장서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개관한 10개 공공도서관의 개관장서 구축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관장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이 된 도서관은 서울, 부산, 경북, 경남, 그리고 충남지역에서 선정한 총 10개의 공공도서관이며, 이들을 모두 방문하여 개관장서의 규모와 구성 현황을 조사하고, 담당자로부터 도서관 개관 준비과정에서

추진한 개관장서 구축 계획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도서관 건립 담당자가 본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면담과 이메일 등을 통하여 추가 자료를 확보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된 도서관들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 도서관 현황

연번	도서관명	소재지역	개관장서 규모	비고
1	A도서관	서울	76,079	
2	B도서관	부산	70,000	
3	C도서관	부산	35,000	
4	D도서관	부산	50,000	
5	E도서관	경북	56,977	
6	F도서관	경북	63,127	
7	G도서관	경북	56,676	
8	H도서관	경남	35,000	
9	I도서관	경남	30,000	
10	J도서관	충남	36,970	

이들 10개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개관장서 구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4개의 영역에 걸쳐서 개관장서 구축 방법을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장서개발정책 수립 여부, 장서구축 기본계획 수립 여부, 개관장서의 규모와 구성비 및 장서확충 방안, 그리고 특성화장서 구축 방법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건립 기본계획, 사업계획서, 재정계획, 도서관운영계획, 장서구성 계획, 운영기본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 주민설명회 자료, 의회보고자료, 타당성 분석 자료,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록,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록 및 건립요청 공문,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시설관리사업소 내부 결재 공문 및 업무보고 자료 등 다양하였고, 각 문서들을 지역별, 유형별로 분류한 후에 Nvivo11 를 이용하여 텍스트들을 분석하고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Ⅲ. 조사결과

1. 장서개발정책 수립 여부

장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공공도서관이 시민의 정보요구 충족을 위한 장서를 집중적으로 개발·보존하고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식문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가장 먼

저 수립되어야 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사대상이 된 도서관들 가운데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한 후 이에 준하여 개관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도서관은 한 곳도 없었다. 면담에 참여한 공공도서관 건립 담당자들 역시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장서개발정책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방문조사에서는 정작 장서개발정책이 아닌 아래에 제시된 장서구성계획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연구자와의 대화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등 사례를 제시한 이후에야 장서개발정책에 대한 이해를 한 담당자들이 대부분이었다.

B도서관의 경우도 그러한데, 이 곳은 도서관 건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이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장서개발정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공도서관 건립 및 개관 과정에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로 인력 및 조직 지원의 문제에서 기인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공공도서관 건립과정이 주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Task Force가 구성되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내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본청으로 파견된 사서직원 한 사람이 전체 사업과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그러다보니 주된 관심은 본인이 생소한 건축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장서의 경우는 질적인 고려보다는 양적 확보에 치중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장서개발정책에 의한 합리적인 장서구성이 우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또한 사실이었다.

2. 장서구성 기본계획 수립 여부

조사대상이 된 공공도서관들은 장서개발정책 대신 간략한 형태의 도서관 장서 구성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하여 개관장서의 구성과 향후 장서확충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7개의 도서관이 도서관개관 TF나 담당직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서 구성 계획을 토대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목적 및 필요성 설정

F 도서관의 경우 장서구성계획 첫머리에 “시민들의 정보요구와 독서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며, 시민사회 모든 계층을 위한 균형 있는 장서를 구축하여 시민생활을 풍성하게 한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B도서관의 경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자료 확충 방안과 수집된 장서에 대한 활용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장서구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장서개발정책에 반영함으로

써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자료 및 정보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으로, 그리고 C 도서관의 경우는" 시민 모두에게 개방된 도서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역의 지식정보문화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장서의 규모와 수준을 갖춘다"는 다양한 목적을 설정하고 있었다.

나. 봉사여건 분석

3개의 도서관은 장서구성을 위해 간략한 지역사회 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즉, 봉사대상 지역의 현황(면적, 행정구역 편재, 인구수, 어린이 및 노인 인구수, 성비, 계획인구 규모 등)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장서구성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F도서관)

B도서관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설정하고 있는 '어린이친화도시'와 '세계화'라는 비전을 추가로 제시하고 장서구성 계획에 어린이를 위한 장서구성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었다. D도서관의 경우도 관내에 노년층 거주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노년 이용자를 위한 장서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해 두고 있었다. 다만, 장서개발정책의 미비에서 볼 수 있듯이 B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라기보다는 주민 여건(인구 구성비) 등에 대한 단순한 기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사대상이 된 10개 도서관 중 장서구성기본계획을 수립한 7개중 3개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련 언급이 아예 누락되어 있었다.

다. 장서구성의 방향성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균형 있는" 장서개발을 강조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E 도서관의 경우 "장서 구성(주제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질적 균형 유지"를 제시한 반면, 이용자 요구 및 이용계층 특성에 따른 최적의 장서 구성(C 도서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살린 자료개발(I 도서관) 등을 제시한 것이 그러했다.

한편으로는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전제로 설정한 경우(F 도서관)도 있었는데, 이용자들의 요구와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서 개발(A 도서관), 장서구성의 지속적 관리 및 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J 도서관) 등이 그러하였다.

대도시에 존재하는 도서관의 경우 도시가 경쟁력있는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보 제공(D 도서관), 그리고 규모가 큰 도서관의 경우 관내 각급 도서관 및 협력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자료제공 범위 확대(B 도서관)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강화 (D 도서관)를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라. 장서 구성 계획

장서개발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장서구성계획에서 자체적인 장서구성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B 도서관의 경우 그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 한국도서관 기준(한국도서관협회)에 준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 도서관장 직속으로 장서개발위원회와 도서관자료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자료의 수집은 1-2년 이내의 신간을 위주로 최신성을 유지한다. 다만, 고전으로 인정되는 자료는 구간자료일 경우에도 수집한다.
- 신간 위주의 단행본, 각종 우수, 추천, 권장도서, 대형 서점의 판매지수(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및 미디어 서평 등 선정도구를 적극 활용한다.
- 향토자료나 지역사회의 향토문화를 발굴, 복원, 계승 발전시키는데 연관된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 복본은 원칙적으로 구입하지 않으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는 복본으로 구입한다.

눈에 뜨이는 점은 도서관장 직속으로 2개의 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장서개발위원회는 도서관 장서개발의 종합 마스터플랜과 구입자료 선정의 기본원칙 및 기타 도서관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서관자료추천위원회는 주제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국내외 학술서적 위주의 추천 및 심의를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한편, J도서관의 경우 개관장서 수집을 위하여 활용하는 선정도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예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J 도서관 자료선정도구 예시

구분	내용
추천도서	스테디셀러, 국립중앙도서관 추천도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추천도서, 동아시아 100권의 책(동아시아 출판인회), 전국 한 책 한 도시 운동 선정도서 및 후보도서, 매경 교보 Best Book, 전국 주요대학교 추천도서, 전국 주요대학교 고전선, 사서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교육청 추천도서, 미술인이 읽어야 할 필독서, 미국도서관협회 추천도서 및 올해의 책, 국회도서관 추천도서, 국립중앙과학관 추천도서, KBS, MBC, SBS, EBS 방송 추천도서, 우수건강도서, 우수과학도서, 화제의 신간, 언론사 추천도서, 언론사 휴가철 읽기좋은 도서, 국내 서점 MD 추천도서, 기타 추천도서
수상도서 (국내)	국내 각종문학상(김수영문학상, 김유정문학상, 대산문학상, 동인문학상, 만해문학상, 미당문학상, 박인환문학상, 백석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신동엽문학상, 오늘의 작가상, 윤동주문학상, 월탄문학상, 이상문학상, 이육사문학상, 정지용문학상, 지훈상, 한겨레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한국소설문학상,한국시인협회상, 한국아동문학상, 현대문학상, 현대시작품상, 현대시학작품상, 현진건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등) 수상도서,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수상도서, 문학동네 소설상, 오늘의 작가상 수상도서, 국내 언론사 신인문학상 수상도서
수상도서 (해외)	일본 나오키상, 아쿠타가와상, 타니자티 준이치로상 수상도서, 노벨문학상 수상도서, 뉴베리, 칼데콧상 수상도서, 볼로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수상도서, 안데르센상 수상도서, 미국 퓰리처상, 오헨리문학상, 내셔널 북어워드 수상도서, 게이트그린어웨이상 수상도서, 독일 뷔히너상, 되블린상, 횔덜린상 수상작, 프랑스 콩쿠르상, 페니나상, 르노도상, 쥘베른상 수상도서, 기타 수상도서,
실용서	취미, 여행, 레저, 스포츠 등 관련 도서, 어학, 자격증 관련 실용서, 진학, 진로탐색, 취업 준비용 도서

3. 개관장서 규모

가. 장서 기준

조사대상이 된 공공도서관들의 개관장서의 규모는 대체로 현행 도서관법 및 시행령의 장서기준을 토대로 한 산정치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16년 4월 현재 인구 1인당 1.75권 수준인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2018년까지 인구 1인당 2.5권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공공도서관 가운데 이 계획을 반영한 장서구성 계획을 수립한 도서관은 F도서관 한 곳에 불과하였다.

나. 장서 규모 비교

D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의 기준 장서규모와 더불어 2016년 기준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총 장서수와 개관장서 규모를 비교하여 개관장서의 규모를 산출한 사례이다. D 도서관 건립계획이 수립된 2016년을 기준으로 도서관이 위치한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총 장서수는 4,753,451권으로 산출하였다. 이 가운데 장서 규모가 가장 큰 도서관은 시민도서관으로 도서 자료 731,080책, 비도서자료 72,010점, 연속간행물 886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최근에 새롭게 개관한 부산지역 4개 공공도서관(어린이청소년도서관 3개관 제외)의 평균 소장장서는 약 5만2천권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 도서관이 예시한 관내 최근 개관도서관의 장서규모는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5〉 공공도서관 자료유형별 장서현황

도서관명	도서자료(권)	비도서자료(점)	연속간행물(종)
동래읍성도서관	16,510	820	42
수영구도서관 망미분관	56,977		90
연제도서관	53,127	2,500	61
정관도서관	83,676	2,154	89

따라서 이러한 비교치를 근거로 신규 개관되는 D 도서관의 개관장서로 5만권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도서관법이 정한 기준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향후의 증서계획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부기하고 있기도 하다.

4. 향토자료 구축

10개의 조사대상 도서관 중 5곳이 향토자료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었다(A도서관, E도서관,

G도서관, I도서관, J도서관). 이들은 대체로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들의 경우로서, 도서관 건립의 목적에 지역학센터로서의 역할을 위한 지역관련 특화자료 수집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였다.

E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자료수집계획)에 따르면 향토자료 선정의 원칙은 "① 우리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지식 및 다양한 정보 전달에 유익한 자료를 수집한다; ②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선정 구입한다; ③ 자료확충 및 이용율을 고려하여 향토자료 확충에 노력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서구입 총예산중 6.2% 의 향토자료 구입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있었다.

향토자료의 범주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I도서관의 경우 향토자료실 설치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전시자료 기증을 유도하고 있었는데 공고문에 의하면 수집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로 "골동품, 고서, 옛 농기구, 그림 등의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전시자료 기증자 인적사항을 기록해 주는 무상기증 조건이었다. A도서관의 경우에는 향토자료의 범주에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자료를 위주로 수집하되, 지역 출판사 및 작가의 출판물, 행정기관의 각종 간행물, 지역 특색자료, 회색문헌(지역 학술행사 및 세미나자료, 각종 도록 등), 지역 작가 작품, 지역의 역사, 인물 관련 자료 등을 수집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Ⅳ. 공공도서관 개관장서 구축 방안

1. 장서개발정책 수립

장서개발은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수립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정보센터의 목표, 이용자의 요구, 그리고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서개발의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의하여 자료를 의도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의사결정과정을 규정한 문서"로서 도서관 장서개발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일반적으로 ① 개요; ② 장서개발대상, 주체, 방법; ③ 기본지침과 세부지침; ④ 자료유형별 집서수준; ⑤ 특수자료 수집지침; ⑥ 기증, 폐기, 불만요소, 지적자유와 저작권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처리 지침; ⑦ 장서개발정책 관리 주체 및 개정주기 등으로 구성되며, 공공도서관의 경우 수집하는 자료의 유형도 명시하여야 하는데, 최근 전자자원이 증가하면서 전자자원개발정책을 별도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공도서관 규모에

서는 일반 장서개발정책에 함께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집서 수준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연구도서관그룹(Research Libraries Group)의 컨스펙터스(Conspectus)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연구자료가 많은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주로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교양자료가 많은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역대표도서관과 같이 일정량의 연구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면서 집서의 수준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수집의 범주와 대상에 있어서는 시민(성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독서자료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이나 그 밖의 일반자료, 학술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자들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 제공되는 학술자료, CD-ROM, DVD 등의 오프라인 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Web DB등의 온라인자료, 인터넷 사이트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그 외 일반자료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운 지도, 사진, 원화, 실물자료, 단명자료 등의 특수범주자료를 모두 포괄하는 장서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학 연구자를 위해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역(학) 관련 도서 및 기타 유형의 자료로서 지적유산으로서 축적성, 체계성, 가치성을 지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이 또한 장서개발정책에 포함하여야 한다.

장서구성의 지향점도 장서개발정책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역에서 출간되는 자료의 경우 망라적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완전수집(Perfect Collection), 미간본 자료 및 연구자료의 파악과 구입, 연속간행물 결호 보완, 파오손자료의 수선, 교체, 매체변환, 연구자료 영인, 복제 등에 대해서 적용하는 보완수집 (Back-up Collection), 그리고 지역 내외의 타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특정 주제자료, 고가자료, Web DB, 회색문헌, 인터넷 정보자원 등 분담 개발하는 분담수집(Sharing Collection)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장서 구성 기본계획 수립

조사대상이 된 도서관들의 경우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은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내부문서로 장서 구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장서개발정책과 내부문서인 장서구성기본계획은 내용과 구성, 범위 측면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장서개발정책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문건인 반면, 장서구성계획은 내부문서라는 점이 다르다.

그렇다보니, 기본계획의 내용과 규모 측면에서 보면 지역 공공도서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계획들을 구성하고 있는 장서구성의 목적과 필요성, 장서구성의 방법과 규모 등 외에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여건 분석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즉, 장서구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도서관의 입지에 따라 인구구성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내 혁신도시나 신도시, 새롭게 조성된 공단지역, 그리고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젊은 부부와 어린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예를 들어 H 도서관의 경우 해당 도서관 입지를 기본으로 연령별 인구 분포를 살펴, 19세 이하 청소년층은 전체의 21% 정도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노령인구 비율이 비교적 낮고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즉, 인구의 역동성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대체로 다양한 정보요구를 지니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보행태를 보일 것으로 추측하고, 아울러 인근에 새롭게 생기는 학교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어린이자료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었다. 즉, 이러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자료의 구축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3. 개관장서 규모 산출

개관장서의 규모는 대체로 현행 도서관법 및 시행령의 장서기준을 토대로 한 산정치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었다. 즉, 신규 개관하는 공공도서관의 장서확보는 도서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1]과 한국도서관협회가 2013년에 개정하여 발표한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서기준을 <표 6>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6〉 도서관법시행령과 한국도서관기준의 공공도서관장서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한국도서관기준(2013)	
봉사대상인구 (명)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기본장서	연간 증가책수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인구 1명당 2권 이상	인구 1명당 0.2권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 연속간행물 : 봉사대상 인구 1천명 당 1종 이상 • 시청각자료 : 봉사대상 인구 1천명 당 10종 이상 구비 해마다 1천명 당 1종 이상 증대 • 그 밖의 향토자료, 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 연속간행물 : 기본 50종 + 이용자수 1천명 당 3종 이상 추가 • 비도서자료 : 이용자수 1천명 당 기본 40점 + 연간 4점 이상 추가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16년 현 재 인구 1인당 1.75권 수준인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2018년까지 인구 1인당 2.5권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공공도서관 가운데 몇 곳이 이 계획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전체 장서규모를 산출하는데 이 계획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한 도서관은 한 곳(F도서관)밖에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개관 시 기본 장서량은 연간 장서 증가량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서관 면적 대비 수용 가능한 최대 장서량 도달시점을 고려하여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수용가능 장서량의 30~50%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면적 대비 수용가능 장서량이 100,000권인 지역중앙관의 기본 장서는 수장량의 30~50% 수준인 32,130~53,550권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도서관들도 대체로 콘텐츠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개관장서 규모로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망라하는 하이브리드형 자료구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 개관장서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계획을 제시한 기본계획도 있었는데, 계획 수립 당시의 산출근거로17,900원(대한출판문화협회 2015 평균도서단가) 또는 18,607원(대한출판문화협회 2016 상반기 평균도서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어린이자료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공공도서관 모두 어린이실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 10개의 공공도서관 중 실제 개관장서 리스트가 도출된 6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개관장서의 이용계층별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대체로 7:3 정도의 비율로 성인자료와 어린이자료가 나누어 편성되고 있었다.

개관장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충 가능성과 연간 평균 장서증가량도 중요하다.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의 경우 비율은 3,000권에서부터 40,000권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공통적인 특징은 개관초기에는 비교적 집중적인 장서 확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개관 이후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장서 증가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건립운영 매뉴얼에는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1]을 근거로 연간 연간증서량을 매년 현재 장서량의 10%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 표는 위의 자료들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2017년에 개관하는 특정의 공공도서관이 기본장서량을 30,000권으로 계획하였을 때, 연간증서량 10% 및 평균도서단가 18,600원(대한출판문화협회 2016 상반기 평균도서단가)를 반영하여 6년간의 소장 장서량 및 소요예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 7〉 공공도서관 연간 증서 권장치 예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장서규모(권)	30,000	33,000권	36,300권	40,000권	44,000권
도서구입비	560,000,000	56,000,000	62,000,000	69,000,000	75,000,000

또한 서가 전체 장서량의 80%가 충족되었을 때 장서폐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표와 같이 장서를 계획하였을 경우, 최대 수용가능 장서량 107,100권의 80%인 85,680권에 도달하는 개관 후 6년이 되는 시점에 장서폐기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개관장서를 구축할 때에는 장서의 주제별 비율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주제별 장서구성은 '균형'을 중시하여야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장서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대상 10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개관장서 리스트가 도출된 6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개관장서의 주제별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대체로 역시 문학과 사회과학 자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대상 공공도서관 개관장서 주제별 구성 비율

분류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총계
비율	4.5%	4.3%	2.6%	16%	5.9%	7.1%	8.2%	5.4%	37.3	8.7%	100%

이 수치를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의 주제별 현황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전국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장서의 주제별 현황은 <표 9>에 나타나 있다.

〈표 9〉 전국 공공도서관 주제별 소장자료 현황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계
국내자료	4,175,012	4,725,851	2,678,930	15,691,602	6,679,495	6,766,657	4,695,368	3,628,942	37,445,231	8,536,812	95,023,900
해외자료	120,465	51,976	32,653	315,367	164,188	130,872	82,988	830,997	1,905,958	164,471	3,799,935
비율(%)	4.69	5.47	3.07	17.71	5.83	8.12	5.08	4.43	36.67	8.94	100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가장 많은 비종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분야는 역시 문학 분야로 전체의 36.7%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주제분야는 사회과학으로 17.7%를 차지하였으며, 이 두 분야의 장서가 전체장서의 절반 이상(54.3%)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현재 공공도서관 장서에는 주제별 편중이 노정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별 구성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이 역시 지역사회 조사 결과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주제구성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4. 향토자료 구축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다수의 향토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향토자료의 규모는 약 59만권에 이른다. 향토자료는 주로 지역의 현재와 역사에 대한 자료,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료들을 의미한다.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자료들로서 역사 등 인문학 및 정치, 경제 등 사회과학 분야 자료들과, 특히 지역학 연구에 필요한 주요 서지, 색인 등의 이차자료, 학위논문 DB 등의 웹자원, 특히 지역 출판사 및 작가 출판물, 행정기관의 각종 간행물, 지역지역 향토자료, 지역지역 학술행사 및 세미나자료 등의 회색자료 등을 수집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역 특성화 자료는 대체로 지역자치단체, 지역 대학교, 지역내 연구소, 박물관 등에서 발간하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번역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족보, 문화연구에 대한 서적, 민속에 관련 자료 등도 포함된다. 또한 해외에서 발간된 지역 관련 자료, 외국 거주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이나 외국에서 번역된 지역 관련 문헌 등도 수집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지역관련 문화콘텐츠는 분담수집이나 협력수집을 통하여 소장 또는 위탁받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지역 관련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가칭) 지식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정 (MOU)'를 체결하여 지식정보협력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단지 수집 뿐 아니라 수집된 지역관련 자료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향토문화콘텐츠 전시공간, 향토문화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제공, 향토문화콘텐츠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타기관과의 상호대차제도 운영 등이 포함된다.

향토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도 중요하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학·향토자료와 특성화 장서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여 소장된 디지털 자료를 지역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역사·문화·산업·행정 등 전 분야의 관련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한다. 여기에는 각종 행정 기록물 및 정부발간물, 향토자료 및 지역 행정 및 의정 자료, 지역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의 행사자료와 간행물, 경영자료, 지역에서 개최된 전시회, 학회, 학술회의 등에서 배포되는 자료, 족보 및 뿌리찾기 자료, 지역 출신 작가 등 지역 인사의 저작물과 박물 등이 포함된다.

이는 주로 지역의 대표도서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인데, 예를 들어 서울도서관 서울자료실의 경우 서울시 행정 및 서울학 관련 자료, 서울시의 각 실국본부 발행 연감, 백서, 보고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서울행정과 정책연구, 서울학에 대한 질의에 대응하는 '서울지식정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천 화도진도서관은 향토개항문화자료관과 개항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천해관문서(인천광역시문화재자료 제20호)등 일반자료 8,582권, 고서 104권, 비도서 1,100여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인천에서 발행됐던 '조선신보'와 '조선신문'의 1908년~1920년까지의 신문기사를 담은 마이크로필름 등 엽서와 실물자료, 지도, 슬라이드 소장. 고서 DB구축 및 홈페이지를 통한 소장자료의 목차서비스와 이미지를 제공한다.

한편 향토자료의 중요한 부분은 지역 정책자료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공도서관이 정책정보 수집 및 제공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정책자료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들의 수증 및 기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지역의 대표도서관들에게 부여된 임무이기도 한다, 이들 대표도서관들은 지역의 최신정책자료와 산하기관 간행물 등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협조 아래 납본을 받기도 한다. 이는 최근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 지원으로 지역자료의 총체적 수집 및 이용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지식정보서비스에 기여하고자 기존 지역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하던 방식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 내 자료 납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대표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 내에 지역학자료 수집 지침을 제정하여 관련기관에 대한 협약과 조례에 의한 납본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도의 경우 참조할 만한 사례가 되는데,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39호] 제 8조를 통하여 지역발간 자료의 납본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자료의 납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대표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11.23.>
1.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제주자치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주자치도의 출자 · 출연 기관
4. 제주자치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 · 제작한 국가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법인 · 단체 · 개인이 제주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대표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없이 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본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규정된 자료
2.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그 밖에 제주자치도와 관련되어 보존 및 일반 공중의 정보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납본부수는 2부로 한다. (이하생략)

Ⅴ. 결론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사회의 지식 기반을 형성하는 일차적인 자원이며, 따라서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는 장서로부터 비롯된다.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사회의 현재적 관심을 반영함과 동시에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비전을 내화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도서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개관장서의 구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을 설립할 때 도서관법이나 한국도서관기준의 장서 규모를 고려하여 장서구성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근에 개관하는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성 과정을 살펴보면 장서개발의 표준적인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2016년 전후로 설립 및 개관이 추진중인 10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기본계획과 관련 내부문서, 그리고 도서관 설립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공공도서관 개관장서 구성의 방법론을 짚어보고 공공도서관 개관장서 구축의 바람직한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공공도서관에서 개관장서를 구축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장서개발정책의 수립과 세부계획으로서의 장서구성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서의 규모와 내용적 구성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와 도서관법 및 한국도서관기준의 장서구성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혹은 지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향토자료 구성의 경우 지역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과 지역에서 생산된 간행물을 완전수집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자 하였다.

지역마다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개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하드웨어 못지않게 도서관의 내용을 대표하는 장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과 최적의 장서를 구성하기 위한 사서의 전문성과 역량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강은영. 2014.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현황과 과제: 정책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27-53.

윤희윤, 장덕현. 2010.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07-122.

장덕현. 2011.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345-364.
장덕현, 이연옥, 윤희윤. 201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모형 연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2014.6, 179-203
도서관연구소. 2010.『공공도서관 장서관리매뉴얼』. 도서관연구소 자료집: 19.
매일경제신문. “공공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정착” (1993. 1. 19)
문화체육관광부. 2016.『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ang, E. Y. 2014.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for Collection Development in Public Libraries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Policy Issu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27-53.
Yoon, H. Y. and Chang, D. H.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a National Library.”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20(1): 197-208.
Chang, D. H. 2011. “A Study on Acquisition Process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4): 107-122.
Chang, D. H., Lee, Y. O. and Yoon, H. Y. 2014. “A Study on a Mode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Libraries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2014.6, 179-203.